



진안군청 자원봉사클럽, 새해맞이 연탄봉사 진행

진안군청 자원봉사클럽은 2026년 병오년을 맞이해 힘차게 출발하자는 의미와 한파에 취약한 가구에 온기를 더하기 위해 지난 3일 새해맞이 연탄봉사를 추진했다.

이번 봉사에는 1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47가구에 연탄 1,200장(12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한파가 이어진 추운 날씨였지만 참여 회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연탄을 지원받은 진안을 독거노인 어르신은 “불까지 사용할 연탄이 부족했는데, 뜻밖에 지원을 받아 너무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클럽 관계자는 “우리의 작은 마음이 모여 필요한 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관내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화목보일러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가 최근 겨울철 추위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화목보일러에 대한 화재 예방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5일 장수소방서에 따르면 화목보일러는 전기나 기름보일러에 비해 연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나무를 원료로 사용하는 특성상 불티가 많이 발생하고 과열되기 쉬워 화재 위험성이 높다.

특히 대부분의 화목보일러는 자동 온도조절 장치가 없어 제어가 어렵고, 연소 후 남은 재를 방치할 경우 미세한 불씨가 주변 가연물로 옮겨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소방서는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보일러 주변 가연물 비치 금지(2m 이상 거리 유지) △안근 소화기 비치 △연통 설치 시 불연재료 사용 △한꺼번에 다량의 연료 투입 금지 △남은 불씨의 완전 소화 확인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권장했다.

/장수=고광호 기자



김제 진봉면 실버빨래방에 세탁기 공동기부 '훈훈'

2026년 새해가 밝아오자 진봉면 지역사회에 따뜻한 연대의 손길이 전해졌다.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규동마을에 거주하는 박금옥(78)씨와 복지기동대(대장 김양곤)가 5일, 실버빨래방에 90만원 상당의 최신형 세탁기 1대를 공동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실버빨래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복지기동대와 박씨가 뜻을 모아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기존 일부 세탁기 교장으로 발생했던 운영상의 어려움이 해소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병원, 2026년 ‘도약의 해’ 힘찬 출발

양종철 병원장, “미래 경쟁력 키워 지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병원으로”

전북대학교병원은 1월 5일 본관에서 운영위원과 보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무식을 개최하며 새해를 힘차게 시작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붉은 말의 활력과 희망이 병원 가족 모두의 한 해에 가득하길 바란다”며, “지난해 의정 갈등 속에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한 모든 구성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은 ‘역사를 이어 미래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신뢰받는 우리의 병원’이라는 경영 슬로건 아래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확보된 국가예산과 자원을 활용해 의료환경 개선, 첨단 의료장비 도입, 핵심 전략사업 추진, 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 등 미래 경쟁력 강화를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병원장은 또한 “진료·연구·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지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좋은 사람이 만드는 좋은 병원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더 따뜻하고 자부심 넘치는 일터를 만들어가자”며 “좋은 병원이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고 지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변화의 중심에 항상 전북대병원 구성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병원, 의료 질 평가 ‘1등급’ 획득… 국내 최고 수준 역량 입증

환자안전·교육·연구 등 전 분야에서 ‘우수’ 평가

전북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의료질평가’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전 영역 ‘1등급’을 받으며 최고 수준의 의료 질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의료질평가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 실적과 안전, 교육,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우수 의료기관에는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지급된다.

이번 평가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6개 영역, 54개 지표를 심사했다. 전북대병원은 환자안전, 의료의 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모든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특히 전 분야에서 균형 잡힌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며, 환자 중심 진료환경 조성, 필수의료 수행, 지역 의료 전달체



계 지원, 교육과 연구 기능의 조화로운 수행을 통해 의료 질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병원 구성원 모두가 환자안전과 교육, 연구라는 기본 역할에 충실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정읍경찰서, 교통사망사고 예방 대책회의 개최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정읍경찰서 두승산출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교통·범죄예방 기능 각 지구대 및 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망사고 급증에 따른 긴급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현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예방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진행 됐으며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 강화, 과속단속 장비·캠퍼 더 활용 등 단속 강화, 교통사고 취약시간대 거점근무등을 실시하여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로 하였다.

박상훈 서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 및 거점근무를 통해 더 이상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소방서, 2025년 구조·구급활동 분석 결과 발표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구조·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구조활동은 분석한 결과, 구조활동 분야에서 총 5,907건 출동해 2,749명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 724건, 생활안전 504건 등 총 1,228건을 출동해 173명을 구조했다.

유형별로 교통사고가 212건(29.2%)이 가장 많고, 화재 172건(23.7%), 위치 확인 136건(18.7%)과 생활안전 출동에서는 벌집 제거가 248건(49.2%)과 동물처리 187건(37.1%)이다.

장소별로는 주거지(주택)에서 발생한 이송이 1,607명(58.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안전사고와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최길웅 부안소방서장은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용지면 구암교회·주민자치위원회, 따뜻한 나눔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5일 구암교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환)가 각각 이웃돕기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암교회는 가정위탁아동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구암교회 신도들이 매월 소액씩 정기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같은 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주민자치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콩 재배·수확 활동을 통해 조성한 수익금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약 100만 원 상당의 화장지를 관내 경로당 40여 개소에 전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치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